

# '138억 불법 대출' 저축은행 수사 확대...파장 어디까지

### 광주지검, '편의 제공' 의혹 수사관 압색...추가 연루자 정향도 전직 은행장·직원·브로커 등 재판 중...관련 변호사 구속기소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138억대 불법 대출의 대가로 전직 은행장 등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재판에서 '수사 확대'를 예고했던 검찰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같은 정 소속 수

사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광주 모 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A 수사관이 해당 저축은행 측에 편의를 제공한 단서를 포착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대출 재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저축은행장 B씨와 배임, 알선수재, 중재 혐의 등을 각각 받은 같은 은행 관계자 C씨, '브로커' D씨, E씨 등에 대한 것이다.

B씨와 C씨는 지난 2021년~2022년 사이 한 업체에 대해 70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B씨는 여러 업체에게 해준 대출(총 138억원)의 대가로 건마다 수

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D씨와 E씨는 각각 B씨에게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의 경우 대출 알선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부인했다.

이 재판 중 검찰은 피고인 일부에 대해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A 수사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 이와 관련된 행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A 수사관 외에도 조직 내 또 다른 연루자를 상대로 검찰을 발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달 14일 광주 지역 한 변호사 F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F씨는 B씨가 속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금품 수수 원인을 받아 쟁건 혐의를 받는다.

당초 F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날로 예

정됐으나, 피고인 측의 연기 요청으로 오는 20일 열리게 됐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세 갈래로 압축되면서 지난해 검·경 등 수사 기관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사건 브로커' 사건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 종료 등에 대해 확인해주시기 어렵다"며 "수사 확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정상화 약속' 오월단체 또다시 내홍

### 부상자회, 회장 퇴진 촉구...공로자회, '총회 무효' 소송 기각

새 집행부를 꾸린 뒤 단체 정상화를 약속했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에서 또다시 내홍이 표출됐다.

5·18 부상자회 회원 50여명은 7일 오후 1시에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연 회장은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취임했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부상자회 정기중앙총회를 거쳐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후보 등록 전 자체 경선을 진행한 데 대해 뒷말이 나왔다.

회원들은 "단일화 명분 하에 이뤄진 사전투표는 '아합'이라며 "조 회장은 회장 출마 당시 학력과 5·18민주화운동 활동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상자회 회원들은 앞서 조 회장의 권한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광주지법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8월30일 기각됐다.

신청인들이 이 결정에 대해 불복, 항고함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에서 조 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3월30일 정기중앙총회에서 신임 윤남식 회장이 당선된 공로자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공로자회 회원 5명이 소송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원고들은 윤 회장이 당선된 총회의 정속수가 현장에 출석한 이들로는 '미달'이었으나, 위임장을 제출한 이들도 포함시키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규연 부상자회장과 윤남식 공로자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각각 단체 정상화와 회원 간 갈등·반목 해소를 내세웠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맨발로 힐링' 광주 동구 맨발길 개장

일상 속 맨발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광주 동구 산수2동 '두암제2리근공원 맨발길 개장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걷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 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 소송 제기 5년 7개월만...광주지법, 유족 19명 중 5명은 기각

일본 옛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의 여러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제기 5년 7개월만이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5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1941~1944년 전남·북 지역에서 강제동원돼 옛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이즈카·나미다·사키토 등 여러 탄광에서 노역했다.

피해자 중 3명은 현지에서 숨졌고, 해방 후 겨우 고향으로 돌아온 피해자 일부는 탄광 노동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다 사망하기도 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 중 군수산업으로 사세를 급팽창한 미쓰비시는 약 1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다.

그중 미쓰비시광업은 일본 내 27개, 한반도 37개소 등 탄광·군수공장 등을 운영했고 조선인 32명이 미쓰비시광업 관련 강제동원 사망자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원고들을 찾아 나서 2019년(19명 원고)과 2020년(9명 원고) 미쓰비시 마테리아루로 사명을 변경한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각각 2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9명을 원고로 한 소송은 지난 8월 광주지법에서 6명 승소 판결을 받아 사망 피해자별로 1억원씩 위자료를(일부는 상속분만 인정)를 인정받았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중국어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가해 사실을 인정해 2016년 '화해' 형식으로 보상금 지급에 최종 합의하고, 나가사키 강제동원 현장에 사죄를 내용으로 한 비석을 세웠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미쓰비

시 마테리아루의 차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안재영 기자

수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구속 면해

## 檢, 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25년' 구형

뜨레들과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게임을 하다 장애인 친구를 죽게 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목포시 북항 한 선착장에서 공병 2명과 함께 10대 지적 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으나,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A씨 쌍방의 항소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피해자 살인에 대해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원심의 구형(징역 25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재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가자 W 1,1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가자 W 1,3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가자 W 80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